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0호 [루게 제 24533호] 주제 103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황병서 동지, 박영식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떠선 합숙은 침실과 식당, 목욕탕, 미용실, 상점, 치료실, 도서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을 그치지 갖춘 로동자들의 따뜻한 생활의 보금자리이다.

지난해 10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대로 공장에 로동자합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부지를 몸소 정해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시였으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세상에 돌도 없는 로동자합숙을 건설하여 어머니당의 사랑이 공장로동계급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하기 위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날마다 단숨에의 기상을 떨쳐으로써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만지만 날리던 곳이 전지개벽되였다고,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서었다고, 인민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이 공장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합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현관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홀과 복도의 층고를 설정하고 녀성들의 취미에 맞게 벽색감도 안은한것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합숙생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침실은 물론 도서실도 잘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목욕탕을 손색없이 건설했으며 식사실은 연회장같이 꾸렸고 주방에 갖추어놓은 설비들도 현대적이고 최신식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합숙생들이 휴식과 오락, 체육을 마음껏 할수 있게 꾸린 공원을 보시고 마치 무릉도원같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합숙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생전에 인민생활문제

와 직결된 이 공장을 그리도 중시하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합숙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공장종업원들이 합숙을 로동자들의 궁전, 로동자들의 호텔이라고 부른다고,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감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각하며 더 많은 천을 생산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 5.1절경축 로동자연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인민군총정지국장인 연희에 참가하여 자신의 마을까지 합쳐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건설을 통하여 인민군대가 당의 방침을 정확하게 관철하였다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건설자들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또다시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추운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에서 덧집을 짓고 그안에서 건설을 진행하는 투쟁자료를 매일 보고받았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관철로 높뛰는 군인들의 심장을 후한도 알구지 못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일본새를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조선인민군 제966군부대, 제462군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고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높은 생산성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꾼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자

## 당책임일꾼이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질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특히 도,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책임일꾼들이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품을 들여 진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합주군당위원회가 사상의 포

문을 열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드세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 밑바탕에는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품을 들여 진지하게 해나가는 군당책임일꾼들의 주도세밀한 작전과 노력이 깃들여있다.

그 어느때보다 실감있게 진행되는 선전원의 날운영은 선동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날 선동원들은 당초급선전일꾼된 공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새겨안았다. 군당책임비서가 집행자의 립장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으로 선동활동에서 나타나 는 우월함을 지적해주고 개선방향을 명백하게 알려주니 선동원들 차지하는 선동원들의 사업을 짜고들것을 결심하고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것이었던것이다.

### 선동원의 날운영과 책임비서

지난 4월초 읍지구의 기관, 기업소선동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선동원의 날의 분위기는 류달랐다. 군당책임비서가 모임에 참가하였던것이었다. 한달동안의 선동활동정형에 대한 총화가 있는 뒤 선동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험토론회와 시범출연을 진행할 때였다. 피부공장의 선동원이 진행하는 위대해설선전을 주의깊게 듣고 난 책임비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해설하는 선동원의 목소리가 좀 딱딱하다는것을 지적해주고 나서 말을 이어나갔다. 실감있는 자료와 함께 풍부한 감정을 해설선전의 실료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교리가 아니겠는가, 짧게 해도 대중의 심장을 쿵쿵 울릴것이라는 선동원이 진짜배기 선동원이라고.

은근한 선동원이 청청선동시범출연을 하고난 뒤에도 책임비

서는 여러명에게 여러가지 청황을 제시해주면서 선동원들의 수준을 로해하여보고 우월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었다. 하모니카를 비롯하여 선동원들이 갖추어야 할 선동기계의 준비정형도 간간히 알아본 책임비서는 결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도 즉시에 세워주었다. 그러던 어떨고 군당책임비서가 선동원의 날운영에 직접 참가하게 되었는데.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와 앞으로의 사업설계를 하고 집행해나가는 군당책임비서 장태일동무의 머릿속에 늘 떠도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사상사업을 지도하는 일꾼이였는가, 집행하는 일꾼이였는가. ...) 도,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책임일꾼들이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품을 들여 진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을 듣고는 그날 밤이 따로 없는 전두를 벌려 전두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고있었다.

이렇게 되어 공장에서는 첫달 생산과제를 두배로 넘쳐 수행하게 되었으며, 기어이 세운 공과생산과제를 보름이나 앞당겨 수행하고 당에 중정의 보고를 올릴수 있었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돋움하는것을 문제해결의 기본원리로 틀어쥐고 행정경제일꾼들도 정치사업의 능수가 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 선동위원회의 사업을 본분올만 하였다.

### 당일군경제선동대와 실효

구수하면서 또 량만과 희열이 넘치니 불맛, 들을 맞이 있다. 당정책이 귀에 속속 들어온다. 특히 선동과 혼성중앙 《분노농사 즐거워라》가 참 좋다. ... 수훈, 동부, 신덕 등 군당의 협동농장에서 진행된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꾼들의 경제선동에 대한 대중의 반향은 이렇듯 컸다. 특히 분조장들의 반향이 대단하였다. 분조장의 다섯가지 임무를 다시금 새기고 분발하게 된다면서 그들은 농업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놓치지 않으려나가는 농촌의 선구자, 기술가 될 똑같은 결의를 터놓았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부서일꾼들로 경제선

## 지배인도 기사장도 정신력발동의 능수로

### 교육도서인쇄공장

교육도서인쇄공장이 공과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적 성과를 거두었다. 로력도 그 로력, 설비도 그 설비이다.

하지만 공과생산에서 이변에 높은 실적을 기록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지배인과 기사장을 비롯한 행정경제일꾼들의 역할이 컸다고 볼수 있다. 그 밑바탕에는 행정경제일꾼들모두가 정치사업의 능수가 되어 대중을 기적창조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적극 때밀고 불려오고있는 행정경제일꾼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조급일군이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돋움하는것을 기본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공과생산과제를 놓고 일부 조급일군들속에서 신심이 없어하는 말들이 나오고있다.

조급당서서 립명철동무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려왔다. 이 문제를 놓고 조급일군은 지배인 립명철동무와 무릎을 마주하였다. 눈이 세운 전두목표를 놓고 안락하와하는 지배인의 얼굴을 보는 조급일군의 마음은 무거웠다. 총합된 두는, 터갈라진 입술... (지배인은 하지도 한다. 그런데 대중은 왜 신심이 없어하는가. 그의 말이 누구나 하나와 같이 그 응해나서도록 때밀어주자.)

《중업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 초급당위원회에서

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첫 공적으로 삼았다. 그것은 그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일꾼들에게 학습제강과 강연제강을 비롯한 정치사업자료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것을 주요 임무로 정하고, 이들을 통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돋움하는것을 기본원리로 틀어쥐고 행정경제일꾼들도 정치사업의 능수가 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 선동위원회의 사업을 본분올만 하였다.

중이공급과 성원들은 전두장에 탄약을 공급하는 심정으로 일손을 다그쳤고 평관직장, 접는기계직장 성원들도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들고나갔다. 그러나 화공공정을 맡은 제책직장에서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였다. 긴장한 로력사정때문이었다. 이때에도 공장일꾼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외적시례가 바로 돌격활동이었다. 당, 행정경제일꾼들, 노동자부동, 동력대, 청년동맹원들의 야간지원원들이다.

집단적혁신의 불길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온 공장에 차고넘쳐있다. 이에 고무된 직장장 최평형동무는 전두조치를 더 구체적으로 짜고들었으며 작업반장 현승철, 김영선 동무들을 비롯한 제책직장의 중

### 평성합성가죽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소학교학생을 가장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지난 3월초였다.

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일손을 다그쳐 며칠만에 계획수행률을 2.5%계수로 끌어올렸다. 대단한 성과였다. 하지만 공장일꾼들의 마음은 어찌되지 못했다. 그 속도로 나간다면 계획된 날까지 생산을 6.0%정도밖에 수행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것이다. 그만큼 공장의 전두목표가 높았다. 그래서 신심 일부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자신심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벌이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때 조급당서서 흥덕수동무는 대중의 정신력을 더 힘있게 폭발시키기 위한 방도를 내놓았다. 당, 행정, 조급일군 누구나 할것없이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사업을 창조적으로 해내려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미, 기적창조의 근본원리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돋움시키는 데 있습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도에 행정경제일꾼들은 모든 사업에 정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9일 유리 드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와 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세계 자주 화와 평화수호를 위한 위업수행에

### 민중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씨야사회의 친선협조관계사에 커다란 자국을 아로새기시었다는 글을 남기었다.

손님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와 마지막시기가서 천지조와 의국방문의 길에서 리승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는 방문록에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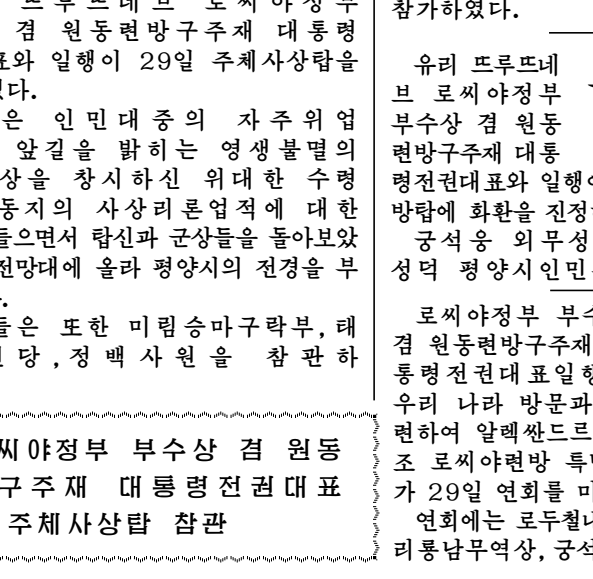
## 내 각 총리 박봉주 동지가

###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일행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동지는 29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리예방문 하였던 유리 드루트네브 로씨야 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와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리봉남부총장, 궁석웅 외무성 부총장, 알렉산드르 제모닌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유리 드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와 일행이 29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궁석웅 외무성 부총장, 김성덕 평양시인민위원회 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



#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당정책을 관철해 온 일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평양326전선공장 케블직장장 문명철동무의 사회생활경력은 간단하다.

평양326전선공장 로동자로부터 기술발전실 설계원, 생필직장장, 부기사장, 케블직장장 등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때로부터 20여년 동안 이 길에서 혁명적업무를 맡아오신 문명철동무의 높은 실력으로 지켜오는 나날에 그는 많은 과학기술과 등록증과 새 기술도입증, 창의고안증을 받

##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평양326전선공장 직장장 문명철동무

음으로써 나라의 전진공업을 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

그는 지난 8년간 케블직장장으로 사업하면서 종업원들을 당에 대한 충정과 의리, 뜨거운 동지로 굳게 묶어세우고 기술혁신을 다그쳐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직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직장장, 3중3대 혁명붉은 기, 2중26호보범기대영예상칭호를 수여받은 단위, 모범준법단위로 빛내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때로부터 20여년 동안 이 길에서 혁명적업무를 맡아오신 문명철동무의 높은 실력으로 지켜오는 나날에 그는 많은 과학기술과 등록증과 새 기술도입증, 창의고안증을 받

어머님께서도 이 길에서 혁명적업무를 맡아오신 문명철동무의 높은 실력으로 지켜오는 나날에 그는 많은 과학기술과 등록증과 새 기술도입증, 창의고안증을 받

그는 그에게 문명철동무는 말한다.

«안 일없소. 이쯤한 일에 초소를 비우고 갈아야 없지.»

«한몸의 아들은 이렇듯 하지 않고 헌신의 마음을 견뎌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참된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몇해전 어느날 문명철동무가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누닷없이 반기며 맞이하는 안해를 보며 그는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얼굴이 푸어 있소?»

그는 그에게 정성이 깃든 푸질한 반말을 퍼놓으며 안해가 물었다.

«오늘 우리 작업반의 한 재봉공이 당신네 문장을 칭찬하더군요.»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해하는 안에게서!

이것은 문명철동무가 20여년의 로동생활기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산 과묵이 되고 하였다.

이런 정신을 안고 그는 지난 8년간 케블직장사업을 하면서 늘 혁신자라고 손꼽히던 그가 세 설비를 다루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어떤 사람이 대외의 기수가 될 수 있소?»

문명철동무는 높은 실력자만이 대외의 알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가운데 그는 한 번도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대학강의는 오로지 계속되고있으며 전진공업의 체계적추진을 담념하고 터득해야 할 의무가 자기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었으며 기대하였었다.»

현행생산지휘를 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그는 순간도 학습

반들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안을 준비하고 개별적 설비들의 기술개조를 위한 착상과 기술혁신안들을 토의해 주어야 했고 자신이 직접 그 알맹이로써 작업하면서

그러던 어느날 고열속에서 기술자들과의 협의회준비를 하고 있는 그의 등을 떠밀며 한 기술일군이 이렇게 말하였다.

«며칠밤을 새웠는데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보십시오. 협의회준비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는 그에게 문명철동무는 말한다.

«안 일없소. 이쯤한 일에 초소를 비우고 갈아야 없지.»

«한몸의 아들은 이렇듯 하지 않고 헌신의 마음을 견뎌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참된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몇해전 어느날 문명철동무가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누닷없이 반기며 맞이하는 안해를 보며 그는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얼굴이 푸어 있소?»

그는 그에게 정성이 깃든 푸질한 반말을 퍼놓으며 안해가 물었다.

«오늘 우리 작업반의 한 재봉공이 당신네 문장을 칭찬하더군요.»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해하는 안에게서!

이것은 문명철동무가 20여년의 로동생활기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산 과묵이 되고 하였다.

이런 정신을 안고 그는 지난 8년간 케블직장사업을 하면서 늘 혁신자라고 손꼽히던 그가 세 설비를 다루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어떤 사람이 대외의 기수가 될 수 있소?»

문명철동무는 높은 실력자만이 대외의 알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가운데 그는 한 번도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대학강의는 오로지 계속되고있으며 전진공업의 체계적추진을 담념하고 터득해야 할 의무가 자기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었으며 기대하였었다.»

현행생산지휘를 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그는 순간도 학습

능수준을 높여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문명철동무는 자기네 직장이 이 사업에서 앞장에 서겠다고 나섰다.

«올림이 실적 있고 실력이 있어야 중요한 몫을 맡아하고 있는 자기네 직장의 제품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인식을 주어야 종업원들의 실력수준을 한계선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문명철동무는 자주 기술학습을 조직하고 자신이 선생이 되어 종업원들을 깨우쳐 주었다.

기술학습이 끝나 모두들 퇴근한 후에는 혼자 남아서 다음날 장의 준비를 하였고 그러다가 모였을 때 그가 모였을 때의 스승들을 찾기도 하였다.

«우리가 이 초소를 잘 지켜야 전진하는 조국의 걸음이 빨라지게 된다.»

그는 늘 이런 의지로 일하였고 대외를 이끌어 나갔다.

«그가 지켜선 초소, 그것은 에델바이스였다. 문명철동무에게 있어서 당이 맡겨준 초국면의 최전연초소였고 조선참호였다.»

오늘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수행전은 과학기술전으로 안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 직장인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당의 경제정책수행에서 앞장서 수 있을 것은 높은 실력으로 대외의 기수가 되어 직장을 이끌어 온 문명철동무의 헌신적노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직장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임무를 안고있던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직장에는 엄무라고 부르는 기대면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면을 뚫다 생산에 큰 지장을 준 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엄무무는 그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 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하루에 이 정도라면 그 집에 가서 쉬세요.»

그날 그는 엄무무에게 공장의 혁신자처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며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서 바꾸고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피며 그를 이끌어 주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면을 뚫다 생산에 큰 지장을 준 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엄무무는 그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 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하루에 이 정도라면 그 집에 가서 쉬세요.»

그날 그는 엄무무에게 공장의 혁신자처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며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하루에 이 정도라면 그 집에 가서 쉬세요.»

그날 그는 엄무무에게 공장의 혁신자처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며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직장은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임무를 안고있던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직장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임무를 안고있던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직장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임무를 안고있던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직장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임무를 안고있던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직장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임무를 안고있던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직장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임무를 안고있던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직장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임무를 안고있던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직장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임무를 안고있던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째에 한하고 아늑하고 단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생산수치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겼다.

직장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임무를 안고있던 직장정신을 앞에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게 말하였다.

«예를 들어 인쇄상표화자를 세로 제작 도입하는 문제가 잘되지 않아 고심하는중이요.»

그의 말에 종업원들은 그것이 왜 직장장님의 일로 되겠는가 함께 토의해보자고 하였다. 어제 날 직장장에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사람들도까지도 팔을 걷고 나서서 자문을 흔거렸다.

그러던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는 문명철동무의 마음은 기뻐했다.

«이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든 못할게 없다.»

그러나 집단의 노력에 케블에 인쇄상표화자를 세로 제작하여 도입하는 문제가 해결되어 인쇄상표화자가 찍힌 첫 케블이 생산되던 날이었다. 직장의 종업원들은 인쇄상표화자가 찍힌 제품을 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였다.

이렇게 집체적지혜 속에서 해결한 기술적문제들은 수없이 많다. 그 하나하나에는 직장의 종업원들의 높은 실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신념이 숨겨져 있다.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의무를 다하려는 높은 자각과 실력, 뜨거운 열정으로 대외의 기수가 되어 당이 맡겨준 혁명적업무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문명철동무!

그의 값높은 삶은 전진하는 대외의 기수가 되어야 할 일군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자기 초소의 중요성과 같은 임무에 대한 자각과 책임이 없기 기발할 따위 말라!

높은 실력과 뜨거운 정의로 대외를 이끄는 참된 기수가 되라!

글 및 사진 | 분사기자 오 은 별

## 그가 지켜선 초소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평양326전선공장 구내길에 오래도록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게 된 문명철동무였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 그가 지켜선 초소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평양326전선공장 구내길에 오래도록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게 된 문명철동무였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 대오의 기수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평양326전선공장 구내길에 오래도록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게 된 문명철동무였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 대오의 기수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평양326전선공장 구내길에 오래도록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게 된 문명철동무였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이제부터 내가 지켜선 초소»

</







